한남 창학정신 Luncheon Talk
발표문

1차 발표 :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조용훈 교목실장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대학]

2차 발표 : 2019년 5월 16일 목요일
이문균 기독교학과 명예교수 [초창기 한남의 기독교적 분위기]

3차 발표 : 2019년6월13일목요일
최영근 인돈학술원장[한남대학교 설립 모델
미국 데이비슨대학의 역사와 교훈]

한남대학교 인돈학술원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조용훈 교목실장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대학]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대학

조용훈 교수 (한남대학교 교목실장)

Ⅰ. 서론
Ⅱ. 미국의 기독교대학
Ⅲ. 한국의 기독교대학
Ⅳ. 한남대학의 과거와 미래
* 질문과 토론 *

Ⅰ. 서론

·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역사는 기독교대학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다만 설립목적은 교육선교를 통한 한국사회 복음화/기독교 교양 지닌 교회와 사회 인재양성

·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은 미국의 기독교대학, 그 중에서도 liberal arts college를 모델로 세워졌다. 자유교양대학은 전문가(성직, 법률, 의료 등) 양성을 위한 교양교육을 목적으로, 방법은 소규모 대학에서 교수-학생의 친밀한 관계를 통한 인격교육

· 대학교육의 대중화에 따라 기독교대학들은 규모가 커졌고, 대학 간 경쟁(서열화)으로 인해 명문대로의 도약에만 힘썼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이제는 생존조차 어렵게 되었다.

· 미국에서는 여전히 소규모 기독교대학들이 정체성과 특수성을 이어가지만,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기독교대학은 정체성 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여전히 새로운 기독교대학 설립에 대한노력이 있다.

Ⅱ. 미국의 기독교대학

1. 1966년에 있었던 1189개 사립대학 가운데 817개가 교회 관련 대학
 1) 1636년 하버드대학. 식민지에 필요한 성직자 및 사회지도자 양성 목적
 2) 1701년 예일대학 1746년 프린스턴대학 등 실망한 교회에 의해 새로운 대학들 세움

> "미국 고등교육의 역사는 종교적 고등교육기관의 신앙 상실에 관한 슬픈 이야기이다"
> (찰스 도너번)
>
> · 종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 확산(신앙논의를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사적 공간으로 추방)
> · 채플과 기독교 교과목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
> · 교수임용에서 공식적 신앙고백 요구 사라짐
> · 사회지도력 대학과 교회 관계 멀어짐
> · 이사회의 구성원 변화(성직자에서 법률가나 기업가로)

2. 산업혁명기의 대학(1865-1900)
 1) 신흥 재산가에 의한 새로운 사립대학의 등장(존스 홉킨스, 코넬, 시카고, 스탠포드...)
  · 종교교육 등한시, 종파적 종교교육 금지, 공식행사에서 종교의식 제거
 2) 독일 대학을 모델로 전문성과 연구기능, 학문의 자유 강조
  · 교수의 정체성이 학생의 인격적 교육에서 개인의 연구능력 향상
  · 연구기금을 국가나 기업체로부터 받게 됨으로써 학문적 관심사가 실용주제로 바뀜

3. 교육에서 정교분리원칙 강조와 영향
 1) 수정헌법 1조. 국가종교의 금지.
  · 차츰 대학교육에서 종교의 역할 제한의 의미로 해석됨
 2) 기독교학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제한, 공립학교에서 성경읽기나 기도, 채플 같은 종교행사 제한

4.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더불어 기독교대학의 위상이나 영향력 약화됨.
 1) 주립대학의 설립과 발전으로 독점적 위상 약화
 2) 대중화로 인해 비기독인 학생의 증가로 캠퍼스내 기독교 분위기 유지 어려워짐

5. 고등교육의 전문화로 인해 학부교육 약화
 1) 인격교육을 강조하는 liberal arts college 중요성 감소
 2) 점차 취업교육기관처럼 변함(인성교육보다 직업교육과 전문교육 강조)

6. 멀티버시티(multiversity: C. Kerr)의 등장
조그만 촌락이던 중세대학이 산업타운, 거대도시 곧 멀티버시로, 가장 큰 특징은 대학교육 통일성(university) 보다 다양성 강조
· 학문간, 연구자간 분절과 소외 현상
· 사회적 효용성 가진 학문 중심으로 발달
· 대학전체를 통합할 핵심 가치 사라짐

7. 여전히 수월성 유지하는 기독교대학 사례들
1) 개혁교회의 칼빈대학교
2) 복음주의의 휘튼대학교
3) 침례교의 베일러대학교
4) 루터교의 세인트 올라프 대학교
5) 가톨릭의 노틀담대학교

특징 · 중소규모 유지, 기독교인 학생 비율 높음, 헌신된 기독교수와 직원
· 장로교의 센터대학(Kentucky) 200주년.
(1천명 이내 규모, 2천억 이상 모금. 교수와 학생 비율 1:10)

Ⅲ. 한국의 기독교대학

1.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효시로서 기독교대학들
숭실대(1906), 이화대(1910) 등 경성제국대학(1923)보다 앞섬
"고등교육의 역사는 한국 여성교육의 역사요, 한국여성운동의 역사다"(이태영)

2. 초창기 우리나라 기독교대학의 탁월성
1) 학문적 수월성
최초의 근대학문 강의 및 학문 발전

2) 도덕적 탁월성
"이 대학(배재대학)은 분명히 결정적인 인상을 (사회에) 주고 있으며, 자유주의 교육 이외에도 그 넓은 지성관과 조선의 구원을 확증하는 심화된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사벨라 비숍, 1897)
· 캠퍼스 내 음주, 흡연, 도박, 음란서적 금지
· 농촌봉사활동, 도시야학운동 활발
· 초기부터 사회복지학 기독교대학에서 주도

3) 문화적 차별성

"조선에서 최고학부이었던 숭실대학에서 공부하는 그 당시의 학도들은 참말 인격에 있어서나 학식에 있어 조선의 지도자됨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조선문화의 연원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학술용어, 웅변술, 스포츠를 비롯하여 심지어 의복의 맵시까지도 숭실대학에서 모범을 보여왔던 것이다." 잡지 <조광>

4) 사회지도력

(1) 중세 유교적 봉건질서 타파하고 근대 시민사회로 발전 원동력

· 남녀차별과 신분제 거부, 시민적이고 민주적인 가치관 교육

· 실사구시의 학문연구

· 독립운동가 배출하고 앞장섬

5) 신앙적 탁월성

(1) 교회지도자 양성

(2) 지역교회 개척과 성장에 기여

(3) 해외선교활동

(4) 캠퍼스 복음화 운동(대학 선교단체들의 발전)

3. 한국기독교대학의 현실

1) 국립대학과 여타 사립대학의 등장으로 초창기 독보적 위상 약화

2) 학문과 문화, 도덕, 사회지도력, 그리고 신앙의 탁월성 상실

3) 기독교 정체성의 약화 혹은 상실

(1) Union Christian College >>> 숭실대학

(2) Chosen Christain College >>> 연세대학

(3) 계명기독교대학 >>>> 계명대학

(4) 기독교사회사업학과(이화여대) >>>> 사회사업학과

(5) 교육목표의 변경.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진리, 정의, 그리고 사랑의 나라를 위해(계명대)

기타

· 채플시간의 축소 혹은 선택화

· 기독교 관련 교과목수 축소 혹은 선택화

· 교수와 직원의 신앙적 열정 약화

Ⅳ. 한남대학의 과거와 미래

1. 인돈의 교육지침

1) 강의는 정시에 시작한다

2) 강의는 정시에 마친다
3) 매시간 과제를 부여한다
4) 교수와 학생은 결강하지 않는다
5) 기독교적 분위기를 유지한다

2. 1962년 정부주관 대학 졸업학사고시 100% 합격

3. 학제간 혹은 융합수업 추구
1) 인문대생은 수학과 물리 화학
2) 공대생은 영어와 성서, 문학 등 의무화

4. 활발한 신앙활동
교직원예배 및 채플 외에도 대학별 교수성경공부, 교수가 인도하는 학생성경공부, 목요찬양, 기독학생연합회의 다양한 캠퍼스 활동

5. 현실
1) 소규모 칼리지에서 대형 종합대학으로(공동체의 관계에서 행정 조직으로)
2) 기독학생 숫자 감소(초창기 전원 세례교인에서 현재 기독인 25% 정도 캠퍼스나 채플에서 기독교 분위기 유지 어려움)
3) 채플, 기독교관련 교과목(교양), 교직원예배, 성경공부, 학과신앙공동체 등 발전 방안 모색 필요

* 질문과 토론

1.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은 정관이나 교목실, 기독교교과목 같은 제도나 형식이 아니라 대학구성원 자신들이다. 교수-직원-학생, 그들은 누구인가?

2.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대학이 교수나 직원의 임용에서 특정종교의 신앙을 조건화 하는데 문제 제기 중(세례증서). 대응방법은?

3. 대학 내 기독교 분위기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2019년 5월 16일 목요일

이문균 기독교학과 명예교수 [초창기 한남의 기독교적 분위기]

초창기 한남의 기독교적 분위기

이문균(신학, 기독교학과 명예교수)

I. 한남대학교의 설립 배경과 역사

1. 대전대학 시기(1956-1970)

이 시기의 특징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명감과 설립 정신이 살아있던 시기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시기의 역사는 주로 설립 정신과 설립자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감, 그리고 대학이 지향하고 꿈꾸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1) 설립 배경과 정신

한남대학교는 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회에서 설립하였다. 한국 선교 초기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회는 주로 평안도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는 주로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미국 남장로교 세계 선교회가 한국에 선교사를 파견한 것은 1892년이다. 남장로교의 교육활동은 교회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종교 교육으로 시작되었다. 주로 교회나 선교사의 사랑방 같은 데서 성경 공부반 형태로 시작되었다.

해방 후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는 1948년부터 한국에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기로 하고 대학위원을 선정하여 준비에 착수하였다. 해방된 한국을 이끌어갈 유능한 기독교 지도자의 육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설립이 지연되다가 1954년 대전에 대학을 설립할 것을 결의하고 대학위원장으로 인돈(린튼)과 5명의 위원을 선정하였다. 6. 25 전쟁이 끝난 다음 해, 아직 전쟁의 상처가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는 황폐한 이 땅에 한남대학이 세워지기로 결정된 것이다.

한남대학교의 설립 정신은 대학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학 건물에도 새겨져 있다. 한남대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본관(인돈관)을 눈여겨보면 특별한 문양을 발견할 수 있다. 얼핏 보면 모르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십자가가 본관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고귀한 삶과 정신, 기독교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봉사의 정신을 상징한다. 그 십자가 형상은 바로 이 대학이 학생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다. 우리 대학이 어떤 정신으로 교육하려고 세워졌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2) 교훈(校訓)

교훈은 학교의 교육 이념을 담고 있다. 교훈은 학생들을 포함한 학교의 구성원들이 추구해야 할 정신과 목표를 가리킨다. 교훈은 그 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의 인격과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학교의 바람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남 대학의 경우 설립할 때 교훈을 정하지 않았다. 설립 이념이 기독교 정신인 만큼 구체적인 교훈이 없더라도 기독교 정신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나 진리, 자유, 봉사 등이 막연하나마 교훈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였다. 교수회의에서 몇 차례에 걸쳐 교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62년 교가가 제정되고 불리워지면서 교가 후렴에 나오는 믿음, 배움, 사랑이란 세 단어가 교훈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초창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교훈을 정한 일은 없지만 믿음, 배움, 사랑은 자연스럽게 교훈으로 정착되었다. 이것은 어떤 행정 기구나 회의에서 정해진 어떤 문구보다도 더 구성원의 마음에 새겨졌다 그러면 초창기 교가에 들어있는 그 세 단어를 통해 대학 구성원은 한남 대학이 추구하는 정신을 어떻게 이해하였을까?

우선 <믿음>은 한남 대학이 서 있는 정신적 바탕인 기독교 신앙을 가리킨다. 한남 대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을 키우는데 관심을 기울인다. 한남 대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기초로 학문을 할 때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신앙을 지닌 믿음직한 사람이야말로 한남 대학이 배출하고 싶은 인간상이다.

다음으로 <배움>은 초창기부터 강조해온 한남 대학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반영한다. 입학식을 하자마자 계속되는 수업, 휴강이 없는 철저한 수업, 엄격한 학사관리 등은 근면하고 실력 있는 일군을 배출하고자 하는 한남 대학의 관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교직원은 물론 모든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제 1회 학사 고시에서 전원이 합격하여 실력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기독교 정신의 핵심으로서 한남 대학 모든 구성원들이 체득해야 할 정신이다. 삶은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키우는 것은 한남 대학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처음의 교훈은 대학이 서울숭실대학과 합쳐지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없어지고 현재는 <진리, 자유, 봉사>라는 교훈이 한남대학이 지향하는 정신을 대표하고 있다.

(3) 대학의 모형과 인재 양성 목표

한남 대학의 설립에 참여한 선교사들이 생각한 대학의 규모와 성격은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데이빗슨 대학(Davidson College)이나 버지니아 주에 있는 햄든-시드니 대학(Hampden-Sydney College)이었다. 처음 설치된 학과에는 설립 당시 어떤 인물을 키우고자 하는가 하는 뜻이 잘 나타나 있다. 1956년 대전기독학관으로 인

가 받았을 때는 성문학과, 영문학과, 화학과가 설치되었고, 1958년 대전대학이란 이름으로 정식 대학이 되었을 때는 수물학과가 추가 되었다. 한남대학은 작은 규모의 문리과 대학으로 출발하였다.

한남대학은 성문학과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필요한 헌신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려고 하였다. 그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한남대학은 인문과학, 자연과학과 함께 신학 공부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성경, 역사, 철학, 성경 언어를 가르침으로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양성하려고 하였다. 영문과를 통해서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을 키우려고 했으며, 화학과를 통해서 미래의 과학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였다.

(4) 기독교 과목과 신앙 증진 프로그램

당시 한남 대학은 학생들에게 대학의 설립 정신인 기독교 정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신앙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성경에 대한 개관과 기독교 교리, 교회사, 성서문학의 세계 등 기독교 관련 과목을 개교 초기부터 교양 필수과목으로 부과하였다. 학생들은 4년 동안 전공과 상관없이 18학점을 이수해야 했다. 1968년부터는 16학점으로, 1970년에는 12학점으로 줄어들었지만 지금과 비교해 볼 때 기독교 필수 과목의 비중은 매우 높았다.

경건회(채플)가 교직원과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매일 15분간 드려졌다. 경건회의 인도는 교목의 주관 하에 교수들이 번갈아 가며 담당하였다. 신앙 부흥 특별 집회는 당시 대학의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였다.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나 부흥사를 초청하여 4-5일에 걸쳐 새벽 기도회와 아침 예배, 성경 강좌와 밤 예배를 가졌다.

대학 생활을 통해서 받은 신앙 교육과 부흥회는 학생들에게 전도와 봉사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였다. 학생들은 개척교회를 세우고, 여름 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섬 마을과 산골에서 농촌봉사활동과 전도활동에 힘썼다. 이런 것들은 학생 활동이기도 하지만 신앙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체험하고 성장시키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다.

(5)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기에 도움이 된 요소

① 대전대학 시절 한남대학이 기독교적 정체성을 잘 유지했던 것은 우선 미국남장로교 선교회에서 대학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신념을 따라 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다.

② 대학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당시 대학의 존재 이유, 교육하는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해도 실력이 너무 못 미치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았고, 성실히 노력하지 않는 학생을 진급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선교사를 비롯한 교수들의 엄정한 자세와 엄격한 학사 관리는 기독교를 신뢰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③ 적은 학생 수 때문에 대학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생과 교수의 인격적 만남이 가능했고, 학생들에 대한 기독교 교육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실시될 수 있었

다.

④ 이 시기는 기독교 교육과 프로그램이 대학 전체의 일로 여겨졌다. 기독교 교육은 특정한 부서나 사람의 담당이 아니었다. 당시 학교 책임자인 학장과 교목이 주요 보직 교수와 함께 채플 등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세례 교인이었다. 목사였던 대학 책임자는 이처럼 총체적인 기독교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

⑤ 이 시기는 한국의 경제 개발 초기였다. 대학, 특히 미국 선교사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기독교 대학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를 선도하는 입장에 있었다. 미국 대학을 통해 체득된 대학에 대한 바른 이해, 내실 있는 엄격한 학사 운영, 앞선 실험 기자재 등 모든 면에서 한남대학은 강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었다. 국가의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국립대학이 당시에는 한남대학보다 좋은 여건과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았다. 한남대학의 교육 여건과 학문적인 성과가 탁월했기 때문에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학문성을 저해한다고 불평할 수 없었다.

(6) 반성

한남대학교는 기독교적 비전과 학문의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적인 정체성은 흐려지고 학문의 수월성도 유지되지 못하게 되었다.

몇 번에 걸친 대학의 장기 발전 계획이 작성되었지만 그 안에 어떤 기독교 대학으로 발전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 양적인 성장 목표와 학문적인 수월성을 추구하는 뜻은 그 안에 담겨있었지만, 기독교적 비전과 학문적 수월성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사회나 총장이 기독교 정신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학과 증설이나 인사 등에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 대체로 이미 교수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에 따라 새로운 학과가 생기든지, 사회에서 선호하는 학과를 증설하였다. 어느 규모의 학생 수가 기독교적인 교육을 위하여 적정한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사회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였다. 그러다 보니 신앙적인 정체성도 흐려지고 학문적인 수월성도 미흡한 상태에 놓여있다. 개성이 불분명한 밋밋한 그저 그런 대학이 되었다.

(7) 제안

① 대학의 교육은 교수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학이라는 기구의 공동체적인 노력이기도 하다. 특별히 기독교 대학으로서 한남대학교가 어떤 대학이 되어야 하는지 공동체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남대학교 사명서가 작성되고 구성원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학과 교수와 다른 전공 교수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연구하고, 그 연구된 내용을 교수 세미나를 통하여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한 다음 그 내용이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발표되어야

한다. 그 안에는 구체적으로 한남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 지켜야할 것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약속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야 한다.

② 개신교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기독교와 문화,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대학의 이념과 교육과 행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것과 변화해야 할 것을 분별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한남대학교는 장로교(개혁교회) 대학이다. 그리스도를 문화의 변혁자로 이해하는 개혁교회의 관점은 기독교적 비전과 학문적 수월성에 대한 한남대학교의 관심을 뒷받침해주는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

③ 기독교적 비전과 학문적 수월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학생 수로 제한하는 것은 어떤 기독교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일 수 있다. 기독교적 비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학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밖에 교육 중심의 대학으로 한남대학교를 특성화할 것인지 연구 중심으로 나아갈 것인지도 함께 고려할 문제다. 이러한 문제는 대학 구성원 중에서 어느 일방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④ 신앙을 가진 학생들의 비율이 많다고 기독교 대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 학생이 많으면 캠퍼스 분위기 자체가 기독교적 정신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람은 의외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한남대학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독교학과와 대학교회는 우리 대학이 기독교 대학임을 확인하고 기독교 정신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상징성과 함께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다.

⑤ 교수들과 직원들이 기독교적 정신으로 가르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수들은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무조건 기독교를 교리적으로 강요하여 반발을 산다든지 인본적인 사상을 일방적으로 전달함으로 기독교에 대하여 편견을 갖게 하지 않아야 한다. 대학 총장은 이사회의 전적인 지원을 받아 복음적인 가르침을 대학 정책에 구현하려는 헌신적인 자세로 공정하고 바르게 지도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사회는 한남 대학교가 기독교적 비전과 학문적 수월성을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후원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사회와 교회는 교리적인 잣대로 대학의 활동을 평가하고 억제하려는 분파적인 태도와 자세를 버려야 하며 대학의 학술 활동과 문화에 대하여 열린 자세를 갖고 지원해야 한다.

<토론을 위한 단상>

① 오늘의 한남대학 현실은 재정을 학생 등록금과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기독교 정체성 유지를 위한 규정은 인권, 신앙의 자유 등의 가치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기독교가 그런 가치와 충돌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② 다양한 여러 학과와 많은 학생들을 안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교수와 학생의 인격적 만남을 촉진할 수 있을까?

③ 초창기 한남 대학은 기독교적 분위기 형성과 기독교적 리더를 키우기 위한 목적을 위해 모든 부서와 교직원이 뜻을 모았다. 오늘의 현실에서 어떻게 구성원의 뜻을 모아 설립 정신을 이어갈 수 있을까?

<참고 자료>

다음은 창학 50주년을 앞두고 총장이 구성한 대학사명서 위원회에서 마련한 <대학사명서> 안이다. 원래는 이사회, 교무위원회, 그밖에 대학 구성원의 동의와 수정을 거쳐 확정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50주년 행사를 앞두고 아무 설명 없이 없던 일이 되었다. 어찌 되었던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작성된 문서였기 때문에 대학 역사의 한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여기에 올려놓는다. 원래는 이사회, 총장, 교수, 직원, 학생이 힘써야 할 실천 사항을 첨부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였다.

<한남대학교 사명서>

한남대학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국에 온 선교사들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봉사할 참된 일군을 교육하기 위하여 그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산에 푸른 소나무를 심었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올렸다. 지금도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십자가의 형태로 대학 본관에 아로새겨져 있다. 이제 설립 된지 50년을 맞이하여 모든 한남인은 설립자들이 품었던 이상을 21세기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뜻을 모은다.

1. 한남대학교는 진실한 기독교적 품성과 알찬 실력을 갖춘 사람을 배출하여 세상을 더 좋게 변화시키는 우수한 기독교 대학이 되려고 노력한다. 한남대학교는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한남대학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선한 삶의 방식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2. 한남대학교 교수와 직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학생을 귀하게 여기

며 그들이 자존감을 갖고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교직원은 서로 마음을 열고 협력하며 꾸준히 자신을 계발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학생들이 충실한 실력을 갖추도록 잘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자기 분야에서 수월성을 가진 지도자가 되도록 뒷받침한다. 우리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과 봉사 정신을 함양하여 자유와 책임을 지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한다.

3. 한남대학교 학생은 삶의 근원에 대하여 경외심을 가지며 부모를 공경하고 자신을 존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산다. 우리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단련하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며 열심히 공부하여 충분한 실력을 갖춤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자원을 책임 있게 사용함으로 평화를 이루는 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 곳을 그 전보다 더 좋아지게 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모두 한남대학교에서 배우고 일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이다. 때가 되면 우리는 한남대학교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설립자들이 품었던 꿈은 우리 뒤에 일하는 사람들과 학생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인돈학술원 Luncheon Talk 3
한남대학교 설립 모델 미국 데이비슨대학의 역사와 교훈

최영근 (인돈학술원장)

I. 들어가며

데이비슨대학(Davidson College)은 1837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데이비슨에 설립된 장로교대학으로서, 현재 우리대학이 가입한 미국장로교대학협회(Association of Presbyterian Colleges and Universities)에 소속되어 있다.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2019년 미국 인문대학 순위 10위를 차지할 만큼 명문대학으로 발전하였다. 초창기의 보수적 교단대학(church college)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대학발전과 학문의 수월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보편적(ecumenical)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신앙과 학문의 조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조금씩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변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오늘 우리대학의 기독교 정체성 논의에 유익하다고 본다. 데이비슨대학은 한국에서 활동한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들(복음, 의료, 교육)을 다수 배출하였고, 대표적으로 호남신학대학의 전신인 호남신학원장이었던 부명광(G. Thompson Brown), 순천 스테이션을 개척한 고라복(Robert T. Coit), 전주예수병원장 구바울(Paul S. Crane), 복음전도자이자 평양신학교 교수를 역임한 마로덕(Luther O. McCutchen), 여수 애양원의 도성내(Stanley C. Topple) 등이 있다. 특히 미국 남장로회가 설립한 대전대학(現 한남대학교)의 6명의 대학설립위원(College Committee) 가운데 조요섭(Joseph B. Hopper)과 구바울이 데이비슨 출신으로서, “미국 기독교 인문대학(liberal arts college)을 모델로 기독교 지도자와 교사와 미래의 목사를 길러내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삼았던 대전대학(Taejeon Presbyterian College)에 데이비슨은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 오늘 발표에서는 데이비슨대학의 기독교 정체성의 변화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들의 기독교 정체성 논의에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대화와 토론을 이어가고자 한다.

II. 데이비슨대학의 설립과 성격

데이비슨대학은 공식적으로 1837년에 설립되었다고 하지만, 그 시작은 183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35년 3월의 장로교 콩코드노회(Concord Presbytery)는 “이 지역의 가난한 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복음목회를 준비시키게 할 기관”을 설립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데이비슨대학의 설립을 자극하였던 요인은 주립대학(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1789년 설립)의 주도권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라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 교단대학을 설립하려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다. 데이비슨의 초대 학장이었던 로버트 모리슨(Robert Hall Morrison)은 1838년 8월의 취임연설에서 “종교 없는 교육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 종교와 교육은 하나가 되어 다음세대의 유익을...증진시키는데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함께 움직일 때 이들은 질서, 절제, 정의, 박애, 신앙, 겸손, 거룩함을 증진시키고...이들이 서로 갈라지면 악, 부패, 비참, 야만, 폭정, 강탈이 일어나 개인과 국가를 타락시키고 파멸시킵니다.

신앙과 지성을 결합하여 다음세대를 교육하고, 기독교적 교육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대학설립의 논리와 목적이었다. 수업은 1837년에 시작되었지만, 채플건물의 초석이 세워진 1836년 4월 7일이 이 대학의 실질적인 창립일이었다.

처음에는 대학설립의 주체인 콩코드노회가 대학설립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단일 노회가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인근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베델노회에 대학운영참여를 요청하였고, 두 노회가 1835년에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노회들이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노회연합 교단대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교단대학으로서의 성격은 1839년 3월 11일에 채택된 대학정관에 잘 나타나 있다. 당시에는 주 의회(State legislature)가 교단설립 대학에 통제권을 행사하려 하였고 이에 반하여 대학들이 정관을 만들어 대학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장로교회의 성찬에 온전히 참여하는 정회원이어야 하고, 학장을 선임하고, 교수를 채용하고, 위원회를 조직하여 학생심사에 참여하면서 대학 전반에 권한을 행사하였다. 교수도 성찬에 참여하는 장로교인이어야 하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장로교 신앙고백과 장로교 정치형태를 받아들이며, “신앙고백에 담긴 교리에 반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장로교 정치의 근본원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임용 시에 공개적으로 표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회를 위한 양성소”로 설립된 데이비슨대학은 구성원들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장로교적 색채를 떴다. 교수나 총장이 목회자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지만 대부분 목사였고, 학생들은 장로교인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었지만 대부분 장로교 출신이었다. 대학에는 1837년에 모리슨 학장과 스패로우 교수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회가 있었고 학생과 교수는 물론 지역민들이 채플실에서 함께 예배하였다. 학생들은 매일 오전 7시와 오후 5시에 채플실에 모여 기도모임을 하였고, 학장과 교수들이 번갈아 가며 기도모임을 인도하였다. 의무적인 종교활동 외에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YMCA가 조직되었고, 학생들 사이에 주일학교와 주일 저녁예배와 수요일 저녁기도모임이 있었다. 학생들은 인근 지역에서 예배를 인도하였다.

III. 남북전쟁 이후 대학의 발전

남북전쟁 이후 재정여건의 악화로 학생수급의 확대가 절실하였다. 데이비슨대학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야 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와 플로리다 지역의 노회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1876년 7월에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의 모든 노회가 참여하는 동남부지역 장로교대학으로 발전하였다. 원활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1877년에는 동문회에서 파송한 2명의 이사가 선임되었고, 이후 동문회는 이사회에서 점차 영향력을 늘려가기 시작했다. 동문회가 노회와 무관하게 이사파송을 하면서 이사회가 교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세속적 공동체"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사회 참여 노회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재정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이사회는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대중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9대 학장 쉬어러(John Bunyan Shearer)는 장로교회가 "그들의 학생을 그들의 학교와 대학에서 길러내야 할 의무"에 대하여 역설하고, 이를 위한 데이비슨대학의 독보적인 가치를 강조하였다. 그는 대학의 설립목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교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성경과목을 핵심적인 필수교과과정으로 확립하였다. 그는 인근의 발전하는 주립대학과 경쟁하기 위해 "높은 학문성"과 "복음적 신앙과 순결한 도덕"을 앞세운 성경적 신앙에 근거한 기독교대학을 차별성으로 강조해야 한다고 믿었다. 학생들은 데이비슨대학교회의 주일예배와 주일성경공부에 의무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대학교회는 대학 외부의 구성원들이 늘어나면서 1885년에 독립건물을 마련하여 분리되어 나갔지만 대학과 긴밀한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주일예배 외에도 매일 오전 학장이 인도하는 채플에 의무 출석해야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매우 종교적이었고, 1890-91년에 등록된 학생 113명 가운데 49명이 목회자 후보생이었다. 1909년의 보고에 따르면 데이비슨대학은 남장로교대학 가운데 목회자 후보생이 가장 많은 학교였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의무적인 채플뿐만 아니라 매일 자발적인 기도모임과 매주 연합기도회가 있었다.

IV. 20세기 초반 대학의 변화

20세기에 들어서며 학생모집을 위한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과과정의 개편이 필수적이었다. 변화의 핵심은 성경과목에 대한 강조와 과학과목의 확대와 선택과목제도의 발전이었다. 그러나 늘어나는 대학재정의 필요를 설립교단이 채워주지 못하였고, 대학은 자연스럽게 공적 기금과 외부의 재정지원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1910년 데이비슨대학은 록펠러재단의 교육기금을 지원받았고, 대학발전의 안정적 기초가 마련됨과 동시에 유망한 대학의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1919-20년에는 장로교 노스캐롤라이나 대회가 데이비슨대학을 위한 "백만불 캠페인"(Million Dollar Campaign)으로 443,000불을 모금하여 대학에 기탁하면서, 대학의 자산이 급증하였

다. 1926년에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의 유명한 사업가 제임스 듀크(James B. Duke)가 설립한 듀크기금(Duke Endowment)으로부터 매년 수익의 5%를 지원받음으로써 대학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 자금은 시설확충과 교수충원과 학생모집의 확대로 이어져서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시기에 있었던 중요한 전환점은 이사회 구성의 변화였다. 이사회의 일원이었던 사우스캐롤라이나 노회들이 1880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설립된 클린톤대학(現 Presbyterian College)을 대회차원에서 지원하기로 1904년에 결정하면서 데이비슨대학과 관계를 정리하였다. 조지아의 노회들 역시 1929년 애틀란타노회를 시작으로 데이비슨대학과 관계를 정리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장로교대학을 지원하였고, 플로리다 노회들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남부지역 노회들이 공동으로 운영해왔던 데이비슨대학은 노스캐롤라이나 이외(以外) 지역 노회들의 이탈로 동문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었다. 1928년에 50명의 이사들 가운데 동문이사는 12명으로 전보다 2배가 늘어났고, 대부분 사업경험과 재산이 많은 사람들로서, 데이비슨대학의 교단적 성격보다는 대학의 이익과 발전에 관심을 가졌다. 사업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동문이사들의 숫자와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후 대학의 성격 변화는 필연적이었다.

이와 함께 교수진에 대한 학장의 권한 강화와 이에 따른 교수들의 위상 강화 역시 대학의 성격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29년에 취임한 월터 링글(Walter L. Lingle) 학장은 대학의 경쟁력이 교육경쟁력에 있고, 그것은 전적으로 교수들의 연구능력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그는 교수연구모임을 권장하였고, 연구년 제도를 시행하여 교수들이 연구와 저술의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교수들의 연구능력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교수 임용은 이전까지 이사회의 권한이었지만, 링글 학장은 교수 임용에서 학장과 교수의 권한을 강화였다. 학장이 이사회의 허락을 받아 초빙분야를 결정하고, 교수 면접을 하고, 최종 선택하여, 이사회에 임용요청을 하였다. 더 나아가 링글 학장은 교수들이 임용 후보자를 함께 면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교수들을 신임교수 초빙과정에 참여시켰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수들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에 의해 대학의 성격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V. 20세기 중반 이후

2차 세계대전은 대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1941-2년에 691명이었던 학생이 1945년 2월에 162명으로 줄었다. 열악한 상황에서 교회의 후원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1940-41년에 교회가 대학에 기부한 4,119불은 전체 지출의 1.13%에 불과하였다. 1941년에 학장으로 선임된 커닝햄(John R. Cunningham)은 취임연설에서 교단이 설립한 교회대학(church college)의 중요성과 과제를 역설하면서, 교회의 지원을 호소하였다. 그는 과거에 교회대학이 미국 고등교육의 산실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교회대학이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명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명이라고 보았다. 위기의 시대에 교회대학이 교회와 사회를 위해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서 대학과 교회와 연결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대학발전에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지 못했다. 1940년대 말에 교회지원은 16,000불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데이비슨대학이 1950년에 80만불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극히 미진하였다. 대학 건물과 시설에 대한 대부분의 지원은 체임버스, 듀크, 리차드슨(L. Richardson), 와츠(George M. Watts), 그레이(James Park Grey) 등의 개인 독지가들로부터 받았다. 이후 1950년대에 대학이 대규모 모금활동을 벌이면서 듀퐁(DuPont), 프록터 앤 갬블(P&G), 미국철강(US Steel) 등과 같은 거대 기업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고, 포드재단으로부터 50만불을 기탁 받았다. 커닝햄의 리더십과 적극적인 모금활동으로 대학의 기금은 크게 늘어났다. 대학재정의 공급원이 교회로부터 대기업으로 넘어가면서 대학이 공적인 기능과 학문적 성격을 더욱 강조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런 결과였다.

대학의 기독교적 성격이 변화되는 결정적 계기는 교수임용자격의 변화였다. 기존의 임용규정에는 교수는 “장로교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1945년에 규정을 변경하여 정교수의 자격을 “복음주의교회 교인”(개신교인)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데이비슨이 장로교대학에서 개신교대학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된 교수가 이사회와 논쟁하며 대학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개신교대학으로 정체성에 변화가 있었지만 신앙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학의 노력은 계속 되었다. 1907년에 YMCA 활동이 발전하면서 학생들이 상주간사를 영입하고 대학이 봉급의 일부를 지원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1951년에 학교가 YMCA 간사를 직접 고용하여 “교목”의 직함을 수여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목회를 감당하게 한 것은 커다란 변화였고, 이전에 없었던 교목제도와 학생담당 목회자가 데이비슨에 생겨난 계기가 되었다. 교수의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예전에 교수들이 감당하던 신앙적, 도덕적 역할이 교목과 학생담당 목회자에게로 넘어갔다. 학교가 제도적으로 시행하던 신앙교육과 종교활동의 많은 부분들을 YMCA가 담당하였고, 1956년에 YMCA 간사와 학생담당 목사로 부임한 조지 스테이플스(George Staples)는 대학의 신앙활동을 운영하고 대학의 채플과 기도모임을 지도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때까지 의무적인 매일 오전 채플이 약화되지는 않았지만, 저녁 기도모임은 점차 약화되었다.

1960년대 중반은 대학교육이 크게 변화되는 시기였다. 전문화된 지식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데이비슨대학은 1968년 가을학기부터 “새로운 커리큘럼”을 시행하였다. 변화의 핵심은 학생들의 자율권과 자기주도 학습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학교가 교육내용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를 스스로 해 나가는 것으로서 옛 교과과정에서 강조해왔던 기독교적 교육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에 학생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1952년에 새로 지은 예배당으로도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었다. 또한 사회의 전반적인 세속화 과정에서 의무적인 예배출석에 대한 학생들의 거부감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에게 주일예배를 요구하는 것에

무리가 따랐다. 대학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과 교수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들의 거센 저항 앞에 의무적인 신앙 활동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웠다. 1966년 5월에 교수들은 의무적인 예배를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표결하였고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시행 이후 1년 6개월 만에 이사회는 의무적인 주일예배 출석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매일 오전 채플 의무출석도 1969년에 폐지되었다.

1970년에 대학은 더 근본적인 변화를 맞았다. 1968년에 학장으로 선임된 스펜서(Samuel R. Spencer, Jr.)는 대학의 전반적인 문제를 조사하여 대학발전방안을 수립할 목적으로 이사, 교수, 직원, 학생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연구회(Academy of Educational Development)를 조직하여 결과보고서에 따라 전격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장로교회의 관계 역시 위원회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위원회는 대학과 장로교회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지만 훨씬 제한적이어야 하며, 덜 공식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교단파송 이사의 구성비가 너무 많고, 대학발전을 위해 이사회가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안은 이사회 안에서 커다란 논쟁거리가 되었으나 결국 1976년에 정관의 부칙이 수정됨으로써 이사의 숫자를 40명으로 하고, 24명은 노회에서 선출하며, 8명은 동문회에서 선출하고, 8명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교수의 신앙과 관련한 자격 문제도 다루었다. 이미 1963년에 교수들은 교수임용 시에 종교적 신앙을 확인하는 문제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수용하면서도 이사회는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들은 “첫째, 기독교 신앙에 충실하며 기독교 신자이어야 하며, 둘째, 데이비슨대학의 목적 선언문을 이해하고 이 목적을 증진시키려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1970년에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는 기독교 신앙에 헌신하는 사람에게만 정교수의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는 규정이었다. 위원회는 이 규정의 폐지를 권고하였다. 교수들과 이사회 사이의 오랜 논란 끝에 개정된 규정은 학장은 교수임용에 있어서 기독교인 남성과 여성, 그리고 “비록 기독교 전통에 양심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더라도 이를 존중하며 일할 수 있고, 데이비슨대학 정관이 규정하는 대학의 목적과 부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비기독교인”을 추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비기독교인 교수가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V. 결론 및 함께 생각해 보기

데이비슨대학의 정체성 변화과정을 놓고 볼 때, 기독교대학의 기독교 정체성 변화의 주요요인으로는 1) 이사회의 구성변화 및 대학정관 개정; 2) 교수진의 성격변화; 3) 학생들의 구성 및 성격변화; 4) 대학재정의 공급원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로버트 베네(Robert Benne)는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기독교대학의 사례연구에서 여섯 가지를 그 특징으로 꼽았다: 1) 풍부한 인적자원(교수진 및 대학운영자)을 제공할 수 있는 건강한 설립 교단; 2) 대학과 교단 간 양방향 소통; 3) 설립교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이사회; 4) 설립정신과 비전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도력; 5) 교수채용과 학생선발 시 신앙적 헌신에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 6) 채플과 비교과 신앙교육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지원. 베네는 특히 비전 있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이 새로 임용되는 교수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오늘 우리대학의 기독교 정체성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았으면 한다.

1) 한남대학교의 기독교 정체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사회? 대학정관? 교목실? 채플? 교직원예배? 교직원 및 학생들의 신앙모임? 기독교적 시설 또는 상징?

2) 한남대학교의 기독교 정체성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3) 한남대학교 기독교 정체성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내용은 무엇인가?

4) 나는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동문, 이사로서 한남대학교 기독교 정체성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